

난민·식민주의 문제 작품에 투영

노벨문학상 압둘라자크 구르나 작품 세계

9년만에 제3세계 작가 수상
'떠남의 기억' '낙원' '바닷가' 등
인종차별적 망명생활 경험 작품 다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탄자니아 출신 압둘라자크 구르나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탄자니아 출신 작가 압둘라자크 구르나(73)는 식민주의와 난민 경험에 천착한 작품을 써온 소설가다.

코로나 팬데믹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난민 문제는 오늘날 지구촌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일컬어 난민이라고 한다. 인류가 직면한 이 같은 난민 문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만큼 확산하는 추세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7일 "식민주의 문제와 난민 운명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을 작품에 투영한 것"을 선정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그의 소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동아프리카에 대해 시야를 넓혀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이 주어졌던 것은 지난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9년만이다. 최근 수년간 북미와 유럽의 문인들에게 노벨상이 돌아간 만큼 이번에는 제 3세계 작가의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구르나는 아프리카 난민 출신으로는 역대 5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아프리카계 흑인 작가로는 1986년 나이지리아 출신 월레 소잉카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1948년 아프리카 동해안 섬인 잔지바르에서 태어난 구르나는 어린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후 영국의 식민 통치가 끝난 1963년 잔지바르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당시 구르나가 속한 민족은 대량학살과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르나는 1960년대 말 영국에 난민 자격으로 도착했으며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인 1984년에야 잔지바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

21세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그에게 영어는 문학적 도구가 됐다. 난민으로서의 체험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로 수렴된다. 모두 10편의 장편과 다수의 단편을 발표했는데 '난민', '혼란'과 같은 주제가 소설의 기저에 드러워져 있다.

구르나는 1987년 데뷔작 '떠남의 기억'을 출간한다. 아프리카 재능 있는 젊은 주인공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988년 '순례자의 길'은 영국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모습 등 망명생활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그렸다. 이후 '낙원', '바닷가', '탈주', '사후의 삶' 등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작품은 난민의 삶과 고통 등이 관통한다.

그러나 난민 경험을 다루면서도 그는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관점을 외면하지 않았다. 문화와 문화, 이전의 삶과 새롭게 대두되는 삶 가운데서 그는 불안정한 상태를 응시하는 작품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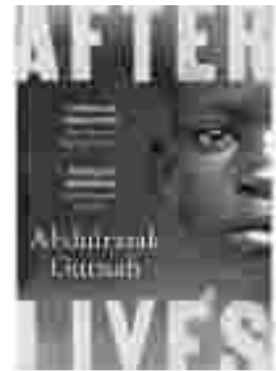
표했다.

특히 구르나가 1994년 발표한 네 번째 소설 '낙원'은 작가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 소설에서 19세기 후반 동아프리카의 식민지화에 대해 폭력과 광기 등을 짚는 듯 묘사했다.

구르나는 수상 직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위대한 작가들이 거쳐간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라며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그는 수상 통보 전화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착각해 전화를 끊을 뻔 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해 화제가 됐다. "보이스 피싱 전화인 줄 알고 '이봐, 썩 꺼지지 못해? 날 내버려 둬'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는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양한 창·제작 담론 강연·강독 열린다

아시아문화전당 16일부터 '열한번의 주문'

'블랙박스', '매체의 접속', '사건과 실험', '신체와 응시'... 동시대 예술과 창·제작에 대한 질문과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는 강연과 강독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창·제작 교육 프로그램인 '열한 번의 주문'을 ACC 문화정보원 극장3과 서점 책과생활에서 진행한다. 강연은 ACC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되며 강독은 큐레토리얼과 공간을 주제로 서점 책과생활에서 진행된다.

16일은 전자음악가 류한길의 '매체와 톨파넬: 기이한 신비주의와 매체의 접속'을 주제로 과거 과학과 현대 과학이 사고의 단계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살핀다. 시각예술가 최보련이 나서 대담을 나눈다. 17일 강연 또한 전자음악가 류한길이 나서 음악 소리를 주제로 한 '안정화되지 못하는 소리들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역시 시각예술가 최보련이 함께 대담을 펼친다.

23일에는 무용비평가 허명진이 '신체와 응시, 공연예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노경에 안무가가 대담에 참여한다. 24일에는 공연예술 독립제작자 고주영이 '새로운 연극 합수로서의 연극연습'을 강연하며 영화감독 마민지가 이야기를 나눈다. 30일에는 영화평론가 유운성이 '영화-기능에 대하여'를 이야기하며 신은실 영화비평가가 대담자로 나선다.

마지막 31일에는 사진작가 김규식이 '사진에 관한 실험'을 모티프로 이야기를 나누며 유운성 평론가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강독 '도시관과 환상들' (22일)은 통제되는 지식과 다른 삶의 생성 가능성 사이의 긴장에 대해 번역자 김이재와 미학자 박상우가 대화를 나눈다. 29일에는 윤경희가 책 '분더커머'를 모티프로 텍스트 내 텍스트를 말하며 미술작가 이소희와 영화작가 백종관이 함께한다. 문의 062-601-443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우광 파곳 독주회'

12일 광주문예회관

독일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 평소 문학적 관심이 깊었던 그는 4편의 교향곡을 비롯해 수많은 성악곡, 협주곡 등을 남겼다. 슈만의 곡을 '파곳'의 연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이우광(사진) 파곳 독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파곳'은 오케스트라의 주요한 중저음용 목관악기로 우리에게는 바순(bassoon)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로맨스'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세계의 민요풍 소품', '환상소품집' 등을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는 조선대 음악교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예고, 호신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지현이 협연자로 오른다.

이 씨는 서울대 음대, 폴란드 국립 쇼팽음악원 등을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파곳수석으로 활동중이다.

전석 2만원. 문의 010-3631-696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송 '어서와요 광주'

광주관광재단, 제작 공개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남성숙·이하 재단)은 광주관광송(song) '어서와요 광주'를 공개했다.



이번 노래는 '예술여행도시 광주'와 광주만의 문화예술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관광송은 '내일은 미스트롯', '놀면 뭐하니?' 등의 방송에 출연한 트로트 작곡팀 '알고보니 혼수상태'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내일은 미스트롯' 참가자인 정다경(사진)의 목소리로 녹음됐다.

특히 최근 인기 장르로 부상한 트로트 버전과 젊은 층에 익숙한 K-Pop 버전으로 공개된 광주관광송은 라디오 CM, 사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중이며, 전화통화연결음 및 TV 방송이나 유튜브 등 송출을 위한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 대중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다문화가족 구성 M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지난 2010년 창단된 M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금까지 창단연주회,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아시아포럼', '현대미술전' 등의 초청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다.



M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는 1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M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 4시30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음악으로 모두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이 단체의 예술감독이자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인 김유정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레퍼토리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중 '키에프의 대문'과 '호박', 그리고 '페르퀸트 모음곡' 중 '솔베이지의 노래'와 '산 속 마왕의 궁전에서', 슈베르트 '군대행진곡', 샤르팡티에 '데 데움', 피블란 '유 레이즈 미 업', 요한스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 등이다.

이날 공연에 특별출연하는 스트링 듀오 빈은 바르톡의 '바이

올린과 첼로를 위한 헝가리 민속 멜로디'를 연주하며, 바이올린 와베미나와 피아노 최은혜는 몬티의 '차르다시'를 들려준다.

전석 초대. 문의 010-5811-61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넌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안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